

일시적 2주택자 ‘숨통’... 살던 집 처분 기한 3년 소급 적용

2020년 구입자도 내년까지 시간 벌어... 시가 12억 이하엔 양도세 비과세·취득세 1~3%만 부담

과거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산 일시적 2주택자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 1세대 1주택자로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작년에 주택을 사들여 당장 올해 안에 주택을 처분해야 했던 2주택자들은 물론, 2020년에 집을 한 채 더 구입한 2주택자들도 이론상으로는 내년까지 주택을 처분할 시간을 벌 수 있게 됐다는 의미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 처분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개정 시행령안을 과거까지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의 발표로 시행령 개정안 효력이 발생한 2023년 1월 12일 이전에 주택을 매수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주택 처분 기한이 3년으로 늘어난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과거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신규 주택

을 매수한 일시적 2주택자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1월 12일 이후 양도분)하고 2주택 상황을 해소하면 1세대 1주택자로서 세금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이들은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기존 주택이 시가 12억원 이하 저가 주택일 경우에는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을 아예 내지 않아도 된다.

취득세 역시 8% (조정대상지역 기준)에 달하는 종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1~3%)만 부담하면 된다.

기존 규정에서는 현재 조정대상지역 외부와 관계없이 과거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조정대상지역에서 추가로 주택을 구입한 경우 무조건 기존 주택을 2년 이내에 처분해야 했다.

주택 소재지가 현재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라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규제를 적용받았다.

가령 2021년 9월에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던 광주에 주택 1채를 추가로 구매한 일시적 2주택자 A씨의 경우를 가정해봤다.

광주는 2022년 9월에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지만, A씨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당시 주택을 구매했기 때문에 올해 9월까지 주택을 처분해야 세금 혜택을 볼 수 있었다.

만약 이 기간 집을 팔지 못하면 A씨는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을 면제받지 못하며, 취득세 종과까지 적용받아 추가로 수백에서 수천만원에 달하는 취득세를 납부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 처분 기한은 조건 없이 3년으로 연장됐고, A씨는 2024년 9월까지 주택을 처분할 시간을 추가

로 벌 수 있게 됐다.

마찬가지로 2020년에 주택을 산 일시적 2주택자도 이론적으로는 올해까지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1세대 1주택자로서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다.

다만 2020년에 이사 등의 목적으로 주택을 한 채 더 사들였을 경우에는 대부분 지난해에 집을 처분했을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까지는 일시적 2주택자가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한 주택 처분 기한이 2년이었으므로, 2020년에 주택을 산 사람은 지난해까지 기존 주택을 팔아야 했기 때문이다.

중부세 역시 마찬가지로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한 주택 처분 기한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났다.

중부세의 경우 지난해부터 2년 이내 주택을 처분하면 1세대 1주택 혜택을 유지해주는 과세 특례가 도입됐는데, 지난해 처음으로 특례를 적용받은 사람들도 소급해서 3년 이내에 주택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해 준다.

이 기간 일시적 2주택자는 공시가 기준 12억원까

지는 중부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며, 고령층이거나 주택을 장기간 보유했을 경우 최대 80%의 세액 공제도 받을 수 있다.

앞서 정부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일시적 2주택자가 1세대 1주택자로서 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주택 처분 기한을 3년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지방세법·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5월 정부 출범 직후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 처분 기한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 데 이은 두 번째 기한 규제 완화다.

이로써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 처분 기한은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게 됐다.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 처분 기한은 당초 3년이었으나 직전 문재인 정부에서 9·13 대책과 12·16 대책 등 잇따른 규제 발표를 거치면서 1년까지 줄어든 바 있다.

/박기용 기자 pboxer@연합뉴스

‘소비 한파’ 온다

소매유통업체 체감경기 3분기 연속 큰 폭 하락

새해에도 각종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고물가가 이어지는 가운데 소매유통업체의 체감경기가 3분기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며 ‘소비 한파’를 예고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소매유통업체 500곳을 대상으로 1분기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RBSI)를 조사한 결과 전망치가 64로 집계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2009년 1분기, 73)와 코로나 충격 시기(2020년 2분기, 66)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RBSI가 100 이상이면 ‘다음 분기의 소매유통업 경기를 지난 분기보다 긍정적으로 보는 기업을 많다’는 의미고, 100 이하면 그 반대다.

RBSI는 작년 2분기 99에서 3분기 84로 떨어진 데 이어 4분기 73, 올해 1분기 64로 하락하며 3분기 연속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모든 업체가 기준치(100)를 밑돈 가운데 그나마 대형마트(83)는 상대적으로 선방할 것으로 전망됐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의 평일 전환과 온라인배송 허용 등에 대한 기대감이 지수 상승에 호재로 작용했다. 대형마트의 주력 품목인 식품이 필수재인 점과 설 특수 등이 기대감 상승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됐다.

반면 보복 소비와 엔데믹 효과로 다른 업체에 비해 높은 경기 기대감을 보여왔던 백화점(71)은 경기 기대감을 크게 낮췄다. 자산가치 하락과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고소득 이용객이 많은 백화점도 부진할 전망이다.

온라인쇼핑(65) 역시 높은 가격 경쟁력에도 전반적인 경기 하락세를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엔데믹 전까지의 높은 상승세에 따른 역(逆)기저효과가 지수 하락을 끌어내리는 요인으로 작용

했다.

불황기에 강하다는 편의점(58)도 낮은 전망치를 보였다. 편의점간 치열한 경쟁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다. 겨울철 유동 인구가 줄어드는 것도 부진 요인으로 작용했다.

슈퍼마켓(49)은 이번 분기에도 부진세를 면치 못할 것으로 전망됐다. 대형마트와 편의점, 온라인 등과의 경쟁 심화로 매출 회복이 쉽지 않을 것으로 분석됐다.

새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전략(중복응답)으로는 비용 절감(48.2%)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온라인 강화(32.0%), 프로모션 강화(25.6%), 점포리뉴얼(19.2%), 상품개발(18.4%) 등이 뒤를 이었다.

최근 경영 애로 요인으로는 소비 위축(34.6%), 비용 상승(25.2%), 소비자물가 상승(11.8%), 상품매입원가 상승(10.8%), 시장경쟁 심화(10.4%) 등을 차례로 들었다.

장근우 대한상의 유통물류진흥원장은 “소비 부진이 장기간 지속될 것에 대비해 소비를 활성화할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을 확대하고 중장기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광주·전남 경윳값 8주째 내림세

l 당 1700원 아래로

광주·전남 경윳값이 지난 주말 l 당 1700원 아래로 내렸다.

15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스에 따르면 이날 오후 지역 주유소 평균 경유 판매가는 l 당 광주 1650.63원·전남 1696.6원으로, 전날보다 각각 1.01원, 1.79원 하락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이후 고공 행진을 지속한 경유 가격은 지난해 5-6월 l 당 2000원을 돌파한 뒤 6월30일 광주 2150.34원·전남 2162.96원으로 정점을 찍었다.

이후 완만한 내리막길을 걷다가 광주는 이달 2일, 전남은 지난 14일 차례로 1700원선 아래로 내려갔다.

경유 가격이 8주째 내림세를 보였지만, 유류세 인하 폭 축소 영향으로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2주 연속 오르고 있다.

이날 지역 주유소에서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l 당 광주 1549.04원·전남 1567.09원으로, 전날보다 각각 0.51원 오르고 0.15원 내렸다.

올해 1월1일부터 휘발유 구매 때 붙는 유류세 인하 폭이 37%에서 25%로 축소됐다. 이에 따라 휘발유 유류세는 l 당 516원에서 615원으로 99원 올랐다.

다만 경유는 가격 수준이 여전히 높아 역대 최대 폭인 기존 37% 유류세 인하 조치가 유지됐다.

대한석유협회 측은 유류세 인하 폭 축소에도 국제 휘발유 가격이 하락세를 이어왔고 원·달러 환율도 하락하면서 국내 휘발유 가격은 이번 주 소폭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휘발유 가격은 소폭 오르고, 경유 가격은 내려가면서 경유와 휘발유 가격 차이가 더 좁혀지리라 전망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기업 10곳 중 8곳 “설 연휴 4일 휴무”

6곳은 “상여금 지급”

올해 설 명절 연휴에 국내 기업 10곳 중 8곳이 상여금 4일간 휴무한다.

15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국 5인 이상 785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설 연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 81.4%는 올해 4일간 휴무할 것이라고 말했다.

5일 이상은 11.2%로, 3일 이하라는 기업 비율은 7.4% 수준이었다.

올해 설 상여금을 지급할 계획인 기업 비중은 67.2%로 지난해보다 1.9%포인트 감소했다. 300인 미만 기업(66.4%)보다 300인 이상 기업(73.6%)에서 상여금을 지급하는 기업 비율이

높았다.

또 올해 설 상여금을 작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하겠다는 기업이 89.6%로 가장 많았다. 작년보다 많이 지급하겠다는 응답 비율은 6.7%에 불과했다. 응답 기업 53.8%는 올해 설 경기상황이 작년보다 악화했다고 말했다. 개선됐다는 응답은 4.5%에 그쳤다.

올해 경영실적 전망과 관련해선 작년보다 악화를 예상한다는 응답이 38.5%로 가장 많았다.

올해 기업 영업실적에 가장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으로는 ‘원자재 가격 상승’(54.7%), ‘경기침체에 따른 제품 수요 부진’(46.7%), ‘인건비 상승’(44.5%) 등 순이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중기 2400여곳 수출 바우처 지원

16일부터 모집... 3000만원~1억2000만원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2400여개사에 수출바우처를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수출바우처 사업은 정부지원금과 기업분담금으로 구성된 바우처를 통해 디자인 개발, 홍보, 바이어 발굴, 해외 인증 등 13가지 수출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해외 진출 마케팅 사업이다.

수출 규모에 따라 3000만원부터 1억2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수출 중소기업 물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2500개 중소기업에 최대 1500만원씩의 물류비를 지원하는 물류 전용 수출바우처 지원 사업도 벌인다.

올해 ‘온라인 수출 중소기업 전용트랙’을 신설해 온라인 수출기업 800개사에 우선 선정 혜택을 부여한다.

중기부는 16일부터 수출·물류 바우처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설 성수품 최대 반값 롯데마트 직원들이 오는 18일까지 최대 50% 할인 판매하는 갈치와 한우, 간편 가정식, 부침가루 등 설 성수품을 선보이고 있다. (롯데마트 제공)

유통가 ‘흠술’·‘혼술’ 추천 상품 내놔

집에서 홀로 술을 마시는 ‘흠술’ ‘혼술’이 유행하면서 설 대목에 유통가가 각종 주류 판촉전을 열고 있다.

롯데백화점은 설 명절을 앞두고 소믈리에(와인 전문가) 3인이 추천하는 상품 5종을 선정했다.

롯데백화점은 명절에 온 가족이 모여 함께 즐기는 ‘홈파티’에 어울리는 추천 선물 ‘베스트 5’를 골랐다.

‘피에르 지모네 기프트’와 ‘임페리얼 리오하 그

란 레세르바’ ‘반피 기프트’ ‘장 골로드 부아세 기프트’ ‘파 니엔테 기프트’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 가격은 10만원 이하부터 40만원대까지 다양하다.

롯데백화점은 완도 활전복 등을 함께 즐길 안주로 소개했다.

홈플러스는 주(酒)류 단골손님을 확보하기 위해 ‘주주클럽’이라는 회원제를 새롭게 선보인다. 이 회원제는 와인부터 위스키, 맥주, 소주에 전통주까지 모든 종류의 술과 안주 등에 할인 혜택을 준다.

또 ‘주주클럽’을 시작한 기념으로 ‘윌리엄 할’ 브랜드의 새 와인 ‘노스 코스트’를 동광주점과 광주하남점 등 전국 50개 매장에서 선보인다.

오는 25일까지는 주중별 단독 할인권을 잘 받침이다.

편의점 이마트24는 ‘고모 상그리아’ 등 ‘이달의 와인’ 14종을 대표 상품으로 내놓고 할인 행사를 벌인다. 지난 한 해 이마트24에서는 와인이 모두 322만병 판매했다. 로제·스파클링 와인 매출이 1년 전보다 30% 늘었고, 적포도주(14%), 백포도주(16%) 등도 ‘두 자릿수’ 매출 증가율을 나타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청년창업사관학교 민간주도형 확대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대전 청년창업사관학교에 시범 도입한 민간주도형 청년창업사관학교를 올해 경기북부·부산·제주까지 4곳으로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기존 청년창업사관학교는 보육생 선발 권한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있지만 민간주도형은 투자 재원과 사업화 지원 역량을 갖춘 민간운영사가 우수한 청년 창업자를 직접 선발하고 교육·코칭부터 투자유치 과정까지 책임진다.

중기부는 올해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생 915명을 오는 16일부터 내달 6일까지 모집한다.

/연합뉴스

로또복권 (제1050회)

당첨번호						2등 보너스숫자	
6	12	31	35	38	43	17	
등위						당첨금(원)	당첨지수
1	6개 숫자일치					1,535,083,280	17
2	5개 숫자 + 보너스숫자일치					62,134,324	70
3	5개 숫자일치					1,517,587	2,866
4	4개 숫자일치					50,000	144,610
5	3개 숫자일치					5,000	2,402,116